

## 정상분만의 처치와 산욕처치

~~~~~국립의료원 산과병동 허 채 영~~~~

환자성명 : 김 × ×.  
연 령 : 28세.  
분만예정일 : 3月 10日.  
분만시간 : 1965年 3月 20日 5시 15분.  
입 원 일 : 3月 19日 오후 9시.  
퇴 원 일 : 3月 25日.

### (A) 진통 처치에 관련된 원칙

정상분만의 처치와 산욕처치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면서도 실상 잘 모르는 경향이 흔히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목을 택하여 보았다.

산욕처치는 산욕기간 6주간에 대한 간호와 관찰을 말해야 하지만 여기선 입원중 병원의 처치에 대해서만 연구하기로 하겠다.

정상분만이란 말은 성숙된 태아와 태반과 양막, 난막이 산도를 통해서 완전히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임신 40주 혹은 280일의 태아가 아두를 선진부로부터 기계의 도움없이 자연 분만하여야 하고 규칙적인 진통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분만도중 아

두런 합병증이 없어야 한다. 분만이 시작되었다 함은 규칙적인 진통이 오고 자궁구 내구가 열리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서 이슬(show)이 보일 때를 말한다.

진통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산되는 Pituitaline이 분별되므로써 자궁근육에 수축을 일으켜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Pituitaline이 분별되는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으므로 분만 시작하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음이 유감스런 일이다. 만약에 알게 된다면 더욱 편리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양막이 파열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지적할 수 없으나 보통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후에 파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만시작 수일전부터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기 파수라고 한다. 이런 경우라해서 결코 분만에 이상이래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파수된 후 전열에 주의하여야 하며 파수된지 24시간이 지나

면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분만에는 세 과정이 있다.

분만 제 1기란 분만 시작부터 OS가 완전히 개대될때 까지를 말하고 분만 제 2기에는 OS가 완전 개대부터 태아 완전 만출까지이며 분만 제 3기에는 태아 완전 만출후부터 태반과 양막이 완전히 나온 후 까지이다.

여기엔 출혈을 조절하는것도 같이 속하게 된다. 어떤 학자는 자궁근육 수축미약으로 인한 산후출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태반 만출후 6시간을 관찰하는 기간으로써 분만 제 4기라 칭하기도 한다.

분만시간은 초산부와 경산부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초산부는 분만 제 1기가 12~13시간, 제 2기가 2시간, 제 3기가 30分, Total 15~16시간의 분만시간을 요하며 경산부는 제 1기 8~9시간, 제 2기 1시간정도 제 3기 30分 or 15分, Total 10시간 정도이다. 위와 같이 오랜시간 동안 진통을 겪어야 하는 산모는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기 쉽다. 따라서 진통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분만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초산부인 경우는 9개월이란 오랜 시일이 지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진통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분만에 대한 무경험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산모는 정신

에 혼란을 갖어오며 여기에 따르는 maternal distress와 fetal distress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산모를 맞아 들일때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풀위있게 대하여 산모의 하여금 온화하고 친절감을 갖도록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이다.

분만실의 분위기는 깨끗하고 조용하여야 하며 집과 같이 아늑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모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것은 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연에 유의하여 무균적으로 해야 한다. 태반이 박리된 자궁벽은 직접 혈관과 연결된 wound를 남겼으므로 전연되면 패혈증의 위험과 자궁에 염증을 초래하기 쉽다. 분만후에 생식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6주간을 산욕기라 하는데 1주가 지나면 자궁은 배꼽과 치골봉합상연과의 중간에 있고 10~14日 후엔 치골봉합상연에서 탄질 수 없게 된다.

아기에게 모유를 하면 생식기 회복이 더 빨라진다.

### (B) 분만 제 1기 처치법

입원전 처치

불규칙 동동이 7pm에 시작. 정상동동이 그 다음날 2시에 시작.  
membranes are intact

본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산욕전 간호를 받은자와 받지 않은자가 있다.

이 산모는 산육전간호를 받은 초산부로서 보호자와 응급제 직원에게 부축되어 들어왔다.

몸씨 고통스런 표정이었고 우리를 보자 안드의 표정을 지었다. 걸음걸이로 보아서 아두가 골반内に 침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진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P.D.에서 산육전간호를 받는 중 안면이 있었고 산모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부터 사침이 있었던 사람같이 친숙하게 맞았다. 원래 보호자는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하여 보호자를 밖으로 내어 보내기에 어렵지 않았다. 입원대기실에서 먼저 깨끗한 소변을 받았다. 무거운 coat 는 벗게하고 체중을 전후 산모를 침대에 눕힌 후 혈압을 측정하고 복부진찰을 한 후 흉문진을 하였다. 그 결과는 혈압 120/80, 소변내의 Albumin 은 negative 이고 무게는 61 kg (3/11에 61.5kg in O.P.D.)

복부측정 :

체위 : L.O.A. Position.

OS : 2~3cm 개대

Station : 21-99보, 두부 Head engaged. F.H.S. : 144/min.

수축 : 3~4min, 40 Second duration, fairly good pain 이었다.

이 산모는 만삭이고 산육전간호증이나 현재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Pubic hair 를 Shaving 해주고 (특히 Perineum (회음) 부위를 깨끗

이) 비누관장 1000cc 를 주입시켜 주었다. 많은 변이 나왔다.

환자가 대변을 다 본 후에 분만실로 옮겼다. 관장한 후 산모는 더 심한 진통을 호소하였으며 괴로워 하였다. 입원한지 1시간후에 OS 가 3~4cm 개대되었고 2~3분마다 진통이 왔다. 동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50mg Pethidine 을 주사하여 준후 분만기진을 돕기 위하여 태아 배부 반대쪽으로 눕게하고 상반신을 조금 높여 주어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Backache 를 호소하므로 등맞사지를 하여 주었더니 훨씬 덜 아프다고 한다.

집에서 사은 물을 물에 타서 자주 마시게 하여 수분공급과 Calory 보충에 주의 하였다.

아두가 잠진 하강됨에 따라 양측 다리가 적려온다고 하여 맞사지 해주면서 산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진통을 겪으므로써 분만이 진행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여 주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가족들의 기대와 조조감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빨리빨리 진통이 와서 분만을 함이 최선의 길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따라서 연장되어지는 가지 가지 일들로 인하여 잠시나마 진통의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통을 조금 둔하게 느끼는듯 진통 사이엔 잠이 들곤 한다. F.H.S. 는 잠이 깨 틈을 타서 15분마다 측정 하고 수축은 30분마다 측정 기입

했다. Pethidine 맞은 후 3시간에 OS는 5~6cm 개대되었고 station 양락은 만출되어 인공파수를 해 주었다. head engagement 되었으므로 제대 탈출의 염려는 없었다.

A.R.M. 직후 Fetal heart sound는 152/min으로써 조금 빨랐으나 잠시 후 좋아졌다.

Sagittal Suture line은 횡근이다. A.R.M. 후에 F.H.S.는 자주들어 fetal distress가 생긴 경우 조기발결과 처치에 유의하였다. A.R.M. 후 2시간에 OS는 전 개대되고 station은 +3 시상봉합선은 천골과 골치봉합선에 일치하였다.

### (C) 처치법

오랜 시간의 진통끝에 분만이 가까웠음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용기를 얻도록 하였다.

mask와 gown을 입은후 분만 tray를 준비하고 미리 알려준 힘주는 방법을 되풀이하여 가르쳐 주었다. 산모는 대변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헛힘을 주었으므로 산모의 기박 소모를 덜기 위해서 옆으로 눕게 하여 힘주게 하였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 받쳐 주었다. 아두가 보이기 시작하여 산모를 똑바로 눕힌 후 회음 소독하고 적당한 시간에 Episiotomy했다. 모두가 아들을 원하고 이 산모는 초산부이므로 빨리 아들을 낳자고 하면서 산모가 힘줄때는 옆에서 같이 힘을 주며 산모의 용기

를 북돋아 주었다. 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정신이 혼란해지고 웃음을 터트릴 것이 당연할줄 알지만 분만중의 산모에게 말로써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초산원의 경험이고 엄마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하여 30분만에 다행히 남아를 분만할 수 있었다.

앞 어깨가 나올 때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여 출혈을 적게하고 태반 박리될 촉진시켰다.

### (D) 분만 제 3기 처치법

만출된 아기는 즉시 거꾸로 들고 입. 코안의 분비물을 suction하여 제거해 주고 발바닥을 자극시켜 울게 하여 첫 호흡을 도왔다.

1% 초산을 눈에 떨어뜨려 인질내 독으로 인한 눈의 감염을 예방하였다. 아기제대에 탁동이 없을때 제대 사트 태고 찢은후 아기는 목욕실에 데리고 갔다. 애기 탄후 10분후에 태반박리되어서 태반과 양막을 완전히 만출시켰다.

환자 자신이 흡입하는 Trilen mask마취하에 Episiotomy한 회음은 catgur으로 봉합하였다. 질벽이나 경부에 파열상은 없다. 자궁저부들 맛사지 혹은 살그머니 눌러 자궁内に 잔재된 응혈를 압출시키므로써 자궁수축을 도왔다. 사용한 기구를 씻고 정돈한 후 다시 산모결에 와서 Fundus contraction을 측정하고 1시간 동안 맛사지하며 출혈의 유무를 판

갈했다. 분만후 혈압은 120/70이다. 산모는 다문 침대에 옮겨 입원실로 옮겨갔다.

### (E) 입원중 산육처치

분만하여 입원실로 옮긴 산모는 준비해 두었던 미역국을 먹도록 한 후 오랫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진정제를 주어 잠자도록 하였다.

#### (1) 1 PM:

잠에서 깨어난 산모에게 자연소변을 권하니 쉽게 소변을 볼수 있었으며 자궁수축도 양호하였다. Episiotomy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므로 Acetyl-salicylic acid 2tablets 투여함. 누울때는 상처 반대쪽으로 눕게 하여 질분비물로 인한 wound healing의 지장을 없애기에 도왔다.

산모는 末期移住시켰으며 과식을 피하게 하였다.

#### (2) 분만 제 2日

심한 발한으로 옷이 흠뻑 젖고 땀새가 나서 가벼운 천대복을 시킨 후 옷을 갈아 입혔다. 침상도 깨끗이 정돈하여 주니 산모는 기분이 자못 상쾌한듯 보였다. 아들을 낳은 기쁨도 표현되었으리라 믿는다.

lochia는 붉은색이고 양은 보통이고 fundus contraction도 양호함. 회음은 물과 Benzalkonium을 4:1로 희석하여 하루 3번 씻어주고 상처에 Lidocaine ointment를 apply하여 통통제거해준다.

#### (3) 분만 제 3日

산모는 움직이는데 어제보다 부드럽다. Hgb.을 한 결과 11.0 gm였다. 별트 빈혈이 아니므로 음식으로 보충하도록 권하였고 약으로 영양제와 철분제를 투여함.

엄마 젖이 분비되기 시작하여 더운 물수건으로 compress한후 가볍게 닦아주었다. 오후엔 다시 Breast massage한 후 아기에게 약 分간씩 빨렸다.

#### (4) 분만 제 4日

Breast milk의 분비가 더 왕성해져서 애기가 얼마나 sucking할수 있고 얼마의 우유포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Test weight를 하니 30~40cc씩 먹었다. 초산부이기 때문에 젖빨리는 기술이 서툴러서 간호원이 옆에서 도와줘야 했다.

먹이기 前에 꼭 비누로 손을 씻고 젖꼭지는 Boric acid sponge로 닦아낸 후에 먹이도록 했고 nipple sore나 cracked nipples 예방하기 위하여 너무 오래 빨리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젖먹일때는 젖꼭지가 애기 혀 위에 오도록 한쪽 먹이고 후에 꼭 트름을 시키도록 하였다.

#### (5) 분만 제 5日

변비를 호소하므로 좌약을 항문에 주입시켜 주었더니 다량의 변을 보았다고 기뻐하였다. 분만후에 하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고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하도록 했다.

퇴원일이 닥아와서 애기 특유시키  
는 법과 배꼽 떨어지기 전후의 cord  
care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직접 시  
범을 보였다. 그리고 회음부 처치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도 알려줌.

(6) 분만 제 6日(퇴원날)

혈압과 맥박 정상이고 Episiotomy  
wound도 깨끗하여 퇴원하기로 했  
다.

아기는 다시 소아과 의사의 진찰  
을 받은후 Child Wellfore clinic  
니도록 낱짜풀 정하여 주었다.

새옷을 입히고 포근한 이불에 잘  
싸있는 애기와 같이 퇴원하는 언마  
의 모습은 자못 흐뭇하고 자비로웠  
으며 대견스럼기조차 하였다. 이 환

자를 간호하여 퇴원시키기까지 아무  
런 합병증이 없었음을 다행으로 여  
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들이 산육전  
간호를 받음으로서 산모나 아기에게  
안전을 갖어다 주었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마음 한구석 조산원으  
로서 작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Reference:

1. A Text Book for midwives. Mar-  
garet F. Myles
2. A Text book of obstetrics and  
obstetric nursing.

-Bookmiller Bowen-

## 내 과 간 호 학

세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편역한 내과 간호학의 금자탑!

강재욱 역  
김재금 역  
손대관

값 일반가 700 원  
학생가 490 원

반양장. 경지. 四六배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